

목포출신 개그우먼 박나래

# “조니 뎁 분장 해보고 싶다”

독한 분장으로 ‘개그지존’ 우뚝

마동석 분장 화제 “뿌듯해”



마이클 조던, 차승원, 마하트마 간디, 유시진. 나 이도, 국적도, 직업도 제각각인 이들의 공통점은 목포 출신 개그우먼 박나래(31·사진)의 개그 ‘제물’이 뒀다는 점이다. 박나래 분장 개그는 작년 가을부터 TV와 온라인을 들쭉이게 했다. 지난 1월 방송된 MBC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예능총회 편에서 유재석이 “2015년은 설현과 박나래의 해였다”고 평가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박나래는 “이제는 분장을 안 하면 꼭 벗고 나온 기분”이라는 말로 분장 개그에 대한 애정을 털어놓았다.

148cm의 아담한 체구에서 실 세 없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꽤 인상적이었다.

◇ “미남미녀 분장 어려워”...유아인·송중기 도전했다 ‘쏘맛’

박나래가 분장 ‘조준 목표’를 고르는 데도 나름의 기준이 있다. 미남미녀, 특히 예쁜 여자는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

“분장으로 잘 생기고 예쁜 건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영화 ‘베데랑’이 한참 인기 있을 때 이 인기를 타고 가자 싶어서 유아인으로 분장했다가 망한 경험이 있어요. 얼굴에 개성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따라 하기 쉬워요.”

박나래는 최근 꽃 같은 얼굴의 유시진에도 도전했다가 실패를 봤다. 그는 “저는 제 분장을 보고

‘유시진과 비슷하네. 대박인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tvN ‘코미디 빅리그’ 무대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면서 “제작진이 다음부터는 잘생긴 얼굴은 하지 말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나래의 분장 욕망을 자극하는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외국 스타가 특히 탐나는 그는 외화 ‘캐리비안의 해적’ 배우 조니 뎁을 1순위로 꼽았다.

◇ 데뷔 10년 만에 빛 봐...“장이고, 사람이고 묵혀야”

박나래를 신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벌써 데뷔 11년차다.

목포에서 나고 자란 그는 2006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다. 꿈도 욕심도 많았을 젊은이 앞에 꽃길은 쉽게 펼쳐지지 않았다.

분장 개그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계속한 끝에 작년에야 비로소 빛을 봤다.

박나래는 “장이고 사람이고 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뷔하자마자 반쪽 ‘대박’ 난 사람을 자주 봤어요. 어린 나이에 잘 된 것보다 지금 이 나이에 잘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10년을 묵히면 언젠가는 된다 싶어요. 오히려 지금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으하하.”

박나래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분장은 배우 마동석을 따라 한 것이라고.

“마동석 분장이 하도 화제라 ‘진짜 사나이’(MBC TV 예능 ‘일밤’ 코너)에 함께 출연한 강예

원 씨에게 그 사진을 보냈어요. 그런데 강예원 씨가 마동석 씨랑 아는 사이라 그 사진을 전달했나 봐요. 마동석씨가 ‘크크크크크 대박’이라고 답문자를 보내왔는데 정말 큰 뿌듯함과 감동을 했어요.”

◇ “개그우먼 편견 깬다고 생각”...연기에 눈독

최근 예능가에서는 개그우먼을 비롯한 여성 방송인 입지가 대폭 줄어들었다.

박나래는 이에 대해 “여자 예능인, 특히 개그우먼은 어느 순간 한계점이 온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자이기 때문에 가령 웃통도 못 벗잖아요. 또 여성 예능인이 세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재는 왜 저렇게 이야기해’라고 바로 말해요. 그렇게 비호감이 되는 거죠.”

김숙의 무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가부장 문화를 비튼 ‘가모장’ 개그라면, 박나래의 그것은 독한 분장 개그와 거침없는 토크다.

“제가 (개그우먼에 대한 편견을) 어느 순간 깬 것 같다”고 말하는 박나래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조명받지 못했던 지난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박나래는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 생각이다. 그는 원래 꿈이었던 연기에 대한 열광도 숨기지 않았다.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박찬욱 감독 영화에 나오기 위해 최고 수위 노출도 감수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연력이 안 오네요?. 하하하.”

/연합뉴스



‘젝스키스 16년전 모습 그대로’

## 무한도전서 팬들과 감동의 재회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있고 있던 열정과 행복했던 나날, 순수한 마음을 떠올리게 해준 시간이었어서 더 뜻 깊었다. 쉽게 사랑하고 헤어지는 이 세상에 이렇게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마음이 어디있겠나.” (네이버 아이디 ‘mari\*\*\*\*’)

16년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선 잭스키스의 모습에 시청자의 마음도 2000년대로 돌아갔다.

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무한도전’ 시청률은 16.4%. 이번 특집의 하이라이트인 고지용의 등장과 게릴라 콘서트 무대에 힘입어 전주의 14.3%보다 2.1%포인트 올랐다.

이날 방송된 MBC TV ‘무한도전’의 ‘토가2-젝스키스’편은 관객석을 가득 채운

노란 풍선 앞에서 열정적인 앙코르 무대를 선보이는 여섯 멤버의 모습과 함께 지난 3주간의 방송을 마무리했다.

앞선 방송에서 잭스키스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과 민속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담았던 ‘무한도전’은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의 근황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지용과의 재회 모습, 게릴라 콘서트에서 팬들과 마주하는 모습을 담았다.

해체 이후 방송가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던 멤버 고지용을 끈질긴 설득으로 무대 위에 올려세운 ‘무한도전’은 소녀에서 어느새 아이엄마가 된 팬들과 그들을 보며 감격에 겨워하는 멤버들의 모습을 교차하며 16년만의 재회를 축하했다.

/연합뉴스

## ‘나를 돌아봐’ 우여곡절 끝에 종영

연예계에서 한 ‘버럭’하는 인물들을 모은 자아성찰 프로그램 KBS 2TV ‘나를 돌아봐’가 29일 종영했다.

지난해 7월 방송 전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시작부터 김수미와 신경전을 벌이던 조영남은 갑자기 “이 시간부로 하차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제작진의 설득에 조영남이 프로그램에 남기로 하자 나흘 뒤엔 김수미가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한 달 뒤에 최민수가 ‘나를 돌아봐’ 촬영을 하던 중 제작진의 얼굴 등을 때려 촬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동안 잠잠하던 ‘나를 돌아봐’는 지난달 고정 출연 예정이던 장동민이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한부모가정 아동을 비하하는 듯한 대사로 논란이 되고 피소되면서 덩달아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이 프로그램에 합류한 국민MC 송해는 다른 출연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안겨줬다. 지난해 성탄절에 방송된 그의 결혼식은 13.4%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나를 돌아봐’는 조우종이 송해를 위해 감쪽 구순 잔치를 열고 이경규와 박명수가 초심으로 돌아간 듯 ‘6시 내고향’의 리포터를 맡는 모습으로 따뜻하게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컬러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웃집 찰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열린공간 토크 talk(재)
1	00 네트워크 특선 <밤상의 전설>(재) 55 별별가족(재)	00 KBS 뉴스타임 10 특집다큐 <우리가 들어줄게>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제24회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00 키즈 사이언스 5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20 사람의 가족 스페셜 40 토티생활체조 45 KBS 뉴스특보 한·이란 협정서명식 공동기자회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일일특보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45 MBC 뉴스특보 한·이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35 텔레몬스터(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동네스타 전국방송내보내기(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보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동네변화 조들호>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2016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1부 <엄명란과 신성일>	10 동상이몽 관촬자 관촬자
12	20 해외결착드라마 <닥터 후 시즌8>	35 비바 K리그	20 MBC 뉴스24 4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5 스포츠 특선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성공시대 기능 한국인 <실패의 변신을 돕는 일등공신 제철살비 검증구>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뽀로로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캐니멀 09:30 원더볼즈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시간 속에 갇힌 아이들>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열정이 해장국과 된장무침>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간 <말기 따는 부부의 귀농분투기> 12:50 EBS스페셜 프로젝트 13:40 줄거울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즈(재) 14:00 미술탐험대 14: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15:30 꼬마기사 마이쿠 <페르시아 문명을 걷다, 이란> 16:00 캐니멀(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크 오늘 <변신반도의 실험인 가족> 20:50 세계테마기행 <페르시아 문명을 걷다, 이란> 21:30 한국기행 <봄나물열전 -나물잔치 열렸네> 21:50 EBS 다크 프리릭 <화산-불의 목시록> 22:45 달라졌어요 23:35 시대공간 24:05 지식채널 e 24:10 EBS 특별기획 통찰 <고전, 인간을 말한다 오디세이아 1편>
5월 2일(음 3월 26일 甲午)			
子	48년생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야 진보하게 되느니라. 60년생 작은 이익 앞에서 현혹 될 필요는 없다. 72년생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속아리도 편하리라. 84년생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 이 현실화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6, 25	午	42년생 내버려 두면 큰 일 나겠으니 속히 조치하여야만 한다. 54년생 기왕이면 리듬을 살려서 했을 때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66년생 소중함을 절실히 실감하게 될 것이다. 78년생 한결 같아야만 인정받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2, 29
丑	49년생 기존 상황을 재편성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다. 61년생 본전만 챙기더라도 선행한 것으로 자기 위안해도 된다. 73년생 현재의 처지와 분수에 순응하는 것이 낫다. 85년생 규칙적 이고 역동적인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06, 83	未	43년생 맹목적인 판단을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속출할 수도 있음을 알라. 55년생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리라. 67년생 가장 용이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낫다. 79년생 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관세이니라. 행운의 숫자 : 12, 41
寅	50년생 일상에서 완전히 탈피 할 수 있는 파격이 아쉽다. 62년생 만이한 국면으로 전환 되지는 않겠지만 여지는 있다. 74년생 방심했다가는 악재들이 겹쳐올 수도 있다. 86년생 앞만 보며 밀고 나아가야 할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15, 48	申	44년생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다면 욕심내어서는 아니 된다. 56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열고 기쁘게 맞이하라. 68년생 비로소 뜻을 펼칠 때가 되었다. 80년생 지체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속히 조치하자. 행운의 숫자 : 65, 27
卯	51년생 실수를 두려워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는 법이다. 63년생 마음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도다. 75년생 무의미하 다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7년생 한 번 놓친다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7, 88	酉	45년생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헛수고다. 57년생 의욕하고 있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길한 국세를 조성하리라. 69년생 전혀 예기치 않은 만남이 있을 수다. 81년생 형평성의 관점 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2, 33
辰	40년생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52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소통할 수 있느니라. 64년생 수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76년생 부자연스럽다. 88년생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59, 85	戌	46년생 귀한 이가 떠나거나 귀중품이 사라질 수도 있다. 58년생 정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처지에 서게 된다. 70년생 그 어느 때라 하더라도 입장이 서로 뒤바뀔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 하자. 82년생 식솔도 단 김에 빼됐다. 행운의 숫자 : 23, 96
巳	41년생 작은 것이 연인이 되어 계기를 이룬다. 53년생 순간적인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65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다. 77년생 술관을 잘 들여놔야 당황하지 않는다. 89년생 문제점은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9, 63	亥	47년생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단순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59년생 원력을 무사하다가는 큰 코 다치리라. 71년생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니라. 83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백 번 낫다. 행운의 숫자 : 24, 4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